山林資源化促進大會와 그 意義

本會總務課長　李 亨 雨

1. 前 言

지난 11月 30日 世宗紀念館에서 林業代表350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山林資源化促進大会를가진바 있다.

여기에는 前 農林部長官을 歷任한바 있는 金榮俊大會長을 비롯한 20個 山林團体長과 山林經營者協會 養苗協會, 山林組合中央會, 林政研究會 林學會 任員等이 大擧 參加하여 盛況理에 大會가 끝났다.

이 모임의 본 뜻은 今般 山林廳이 第3次 山地資源化10個年計劃을 樹立하여 이를 우리 林業代表들에게 알리고 이 計劃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林業人 代表가 한자리에 모여 效率的인 方法論을 模索하는 同時에 우리 林業人의 意見도 党政 要路에 建議해서 沈滯된 우리 林業의 活路를 찾아 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러므로 本論은 이날 山林廳長의 第3次 山地資源化10個年計劃의 背景과 推進方向에 對한 說明文과 그리고 우리 林業人一同이 党政에 보내는 建議文을 收錄하는 同時 이날 本大会에서 民政党中央委議長이 発表한 山林公約事項을 그대로 記錄에 남겨 本大會의 紙上中繼를 하자는데 뜻이 있는것이다.

2. 山地資源化10個年計劃의 背景과 推進方向

平素 尊敬하는 金榮俊 會長님,

그리고 林業界의 指導者여러분, 篤林家여러분, 山林組合長여러분!

오늘 우리 林業界의 團合을 다지는 이와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이번에 確定된 山地資源化10年計劃의 背景과 方向에 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의 山林政策은 8.15解放, 6·25戰乱의 山林荒廢期로부터 山地砂防과 民有林造林, 燃料林造成에 注力했던 50年代, 60年代의 山林復舊期를 거쳐서 70年代初부터 本格的으로 시작된 1, 2次 治山緑化事業을 成功的으로 마무리 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林業界, 林學界 先輩여러분을 비롯한 篤林家, 農山村住民, 그리고 山林組合長과 山林公務員들의 땀과 精誠의 結果였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읍니다.

오늘날 世界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驚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부신 經濟成長가운데, 우리 山林分野에 있어서도, 即, 國土緑化에 對하여도 肯定的이고 成功的인 評價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偶然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不過 20~30年만에 國土의 速成緑化가 成功할 수 있었던 要素로서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읍니다만 저는 다음 세가지를 強調하고 싶습니다.

첫째, 政府의 確固한 國土緑化意志와 政策의 뒷받침으로 汎國民的인 山林保護意識과 植樹運動, 愛林思想이 擴散 定着되었고,

둘째, 山林毁損과 荒廢의 가장 큰 要因이었던 燃料體系의 轉換, 即, 땔감이, 나무에서 石

炭과 기름으로 바뀌고 木材代替資源이 開發되고, 交通輸送手段의 擴充으로 國民生活의 質的向上등 經濟的 與件變化와,

세째는 當場의 利益이나 收支를 度外視하고 植樹造林에 先導的으로 投資해 오신 全國의 篤林家, 企業人의 精誠과 努力, 特히 나라의 먼 將來를 내다보면서 山과 나무를 사랑하고, 이를 가꾸고 키워오신 篤林先覺者, 山林團體여러분의 愛國的인 努力을 저는 強調하면서 이機會에 다시한번 敬意와 感謝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山林政策은 새로운 轉換期에 들어섰읍니다. 나무를 많이 심되 보다 쓸모있는 나무, 經濟樹를 適地適樹原則으로 集團人工造林을 繼續 擴大해야 한다는 輿論이 있어온지 오래입니다.

國土의 2/3를 차지하는 山林과 山地를 보다 經濟的으로 効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고 國民의 休息과 文化空間으로 開發 活用해야 한다는 主張도 없지 않습니다.

沈滯된 山林投資를 活性化하고 萎縮된 篤林家의 意欲을 북돋우기 위한 여러가지 直接, 間接的인 施策, 制度的 뒷받침과 雰圍氣造成을 보다 果敢하게 서둘러야 한다는 意見도 많습니다.

이러한 意見과 輿論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國土의 2/3를 차지하는 山林을 더욱 알차게, 보다 쓸모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唯一하고 所重한 自然資源을 가꾸고 開發하고 活用해야 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山林을 資源化해야 한다는 當爲性과 共感帶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山林廳은 그동안 推進해온 1, 2次 治山綠化事業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에 提起된 問題點과 課題, 오늘의 現實과 與件, 그리고 未來의 展望을 바탕으로 來年부터 「山地資源化10年計劃」을 確定 推進하게 되었읍니다.

이 山地資源化政策은 여러분께 配布해 드린 冊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가지 希望的인 根據를 前提로 하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의 山林도 적어도 50年以上을 展望하고 이제부터 産業으로서의 林業政策, 即, 農山村住民의 生産所得과 連繫시킨 一貫性있는 資源化政策을 通하여 投資價値가 있는 經濟林業으로서의 成長可能性을 높이고. ,

둘째, 다가오는 2000年代 高度産業社會의 國民生活의 패턴 變化에 따른 山林의 役割과 機能, 即 公益的 機能을 包括하는 多樣한 國民全體의 健全한 生活文化空間으로서의 環境林業을 調和있게 追求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來年부터 推進하고자 하는 山地資源化10年計劃의 政策基調는 綠化와 保全優先施策規制爲主의 行政에서 資源化와 經營優先의 施策, 그리고 助長해 주는 行政으로 바꾸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97年까지 10年間은 山地資源化의 基盤造成段階로, 2000年代에 가서는 開發擴大, 保續生産段階로, 先進林業經營 水準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政策目標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山林政策은 人材를 키우는 教育政策과 같이 적어도 100年 앞을 내다보고 巨視的으로 一貫性있게 長期政策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山林政策은 農業 및 農村政策과 마찬가지로 經濟性과 收益性, 即 投資의 効率性을 넘어선 國民的 連帶性, 우리의 精神的 뿌리와 連結된다는 바탕위에서 樹立되고 推進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山林없이는 人間이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普遍化, 生活化되어 있는 獨逸이나,「治山治水」가 治國의 根本이라는 東西古今의 古典的인 教

義가 아니더라도 이미 世界的으로 地球村의 環境破壞와 山林資源의 減少가 深刻한 問題로 크게 擡頭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山地, 山林政策에 對한 確固한 哲學과 視覺, 그리고 方向을 다시 定立하고 國民的關心과 意志를 한데모아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읍니다.

山地資源化計劃의 推進方向을 좀더 具體的으로 要約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山地利用政策은 國土의 效率性을 提高하고 農山村의 長·短期 所得源으로 開發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山地利用調査를 實施하여 長期的이며 段階的인 利用體系를 세워 나갈 方針입니다.

1段階로 88年과 89年에 準保全林地에 對한 細部調査를 實施하여 그 利用 可能性을 診斷하고, 2段階로 90年부터 4年間에 걸쳐 保全林地에 對한 利用區分 調査를 實施할 計劃입니다마는 特히 山林面積率이 70%가 넘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生産林地 200萬ha를「林業振興促進地域」으로 設定하여 이 地域에 對한 集中投資 支援을 強化해 나갈 것입니다.

○林業助長 施策으로서 造林·育林· 生産部門과 利用加工·流通部門이 서로 有機的인 聯關을 가지고 均衡있게 發展되도록 誘導하면서, 特히 林業投資의 活性化를 爲하여 內·外材의 需給調節을 通한 林産物의 適正價格 維持와 民間投資環境 및 與件을 改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山林政策은 쓸모있는 나무를 심어서 값지게 키우는 質的造林과 더불어 이미 심어진 나무의 育林管理부터 間伐材, 小徑材의 利用加工 擴大와 收穫된 나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流通과 需給面에 이르기까지 指導하고 支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30年代 即, 50年後에는 國內材 供給比率 50%를 目標로 하여 林産物과 木材關聯産業에 對한 民間投資與件과 環境을 造成해 나가고자 합니다.

○私有林施策은 零細私有林을 適正規模의 協業經營單位로 組織 育成하기 爲하여 現行 山林組合으로 改編하고, 林業經營基盤의 擴充을 위한 林道網의 擴張과 林業機械化를 年次的으로 促進하고 林業專門技能人을 育成해 나갈 것입니다.

私有林經營의 關鍵은 바로 山林組合의 機能과 自律性을 높여 名實相符한 山主와 山林契中心의 山林經營單位로 만드는 일입니다.

山林組合이 바로 零細山林의 協業經營主體가 되어 受託造林, 育林事業을 擴大하고, 大單位林業經營을 獨自的으로 할 수 있는 山林開發事業團을 設置 運營하겠으며, 特히 林業經營基盤의 核心이 되는 林道網을 10,000km로 늘리고 有能한 林業專門技能人力을 大幅 養成해 나가겠읍니다.

○國·公有林은 年次的으로 擴大·集團化하고 適正規模의 經營單位로 改編, 劃期的인 經營體制를 確立하여 木材生産 및 國民休息空間 提供을 위한 國家의 調節機能을 強化할 것입니다.

앞으로 國有林은 나무를 키우는 經濟的, 生産的機能과 國土環境과 水資源을 保全하고 景觀을 維持하는 公益的 機能外에도 우리 國民들이 찾아서 쉬고, 즐기고, 心身을 鍛鍊하는 社會·教育·文化的 機能을 擔當하는 即, 健全한 休息空間으로서 適正하게 利用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來年부터 몇가지 示範事業을 年次的으로 實施해 나가는 한편, 能率的이고 徹底한 現場 爲主의 國有林經營을 위하여 地方營林組織을 劃期的으로 改編 補強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林業이 하나의 産業으로서 持續的으로 成長 發展하기 위해서는 先進尖端技術을 비롯한 實用的인 林業技術을 積極 開發하고 이를 教育 普及해 나가야 합니다.

林木育種研究所의 優良樹木開發研究를 促進

하고 오랜 傳統을 가진 林業試驗場을 林業研究院으로 改編, 그 研究陣容을 補強精鋭化 해 나가겠으며, 林業研修院을 光陵에 建設하고, 林業機械訓練院을 補強하여 有能한 林業公務員과 後繼專門技能人養成을 專擔케 하고 林業經濟에 關한 研究機構를 設置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山地資源化計劃의 成功的인 뒷받침을 위하여 現行 法令·制度·組織등의 改革과 政府의 財政·金融을 더욱 擴大 支援해 나갈 것입니다.

來年中에 山林法과 山林組合法을 비롯한 山林關係法令을 改正하고, 山林投資促進을 위한 林業稅制의 改善과 長期低利의 林業開發基金造成 그리고 山林災害保險制度등 林業全般에 關한 長期的인 制度改善作業을 段階的으로 講究하고자 합니다.

오늘 特히 부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山地資源化政策을 實質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山林法施行規則을 改正,

○準保全林地에 對한 營林計劃制度의 廢止

○篤林家의 山林施業 自律化 措置

○土石採取 許可制度

○山林毁損 許可 및 申告制度

○國有林 貸付制度 改正등 一聯의 改善措置를 斷行한 바 있읍니다만, 앞으로 계속 우리一線 山林行政부터 그 體質을 刷新하여 篤林家와 林業界 여러분을 밀어주고 도와주는, 先導하고 奉仕하는 山林行政으로 하나 하나 問題點을 改善 發展시켜 나갈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以上으로 山地資源化計劃의 背景과 推進方向에 關하여 說明을 올렸읍니다만 모든 施策이 그러하듯이 政策의 成功與否의

○첫째 問題가 財源確保 問題입니다.

앞으로 10年間 林業 總投融資 規模는 2兆 4,380億으로서 年間 2,400餘億의 投資가 됩니다. 이 가운데 政府·地方自治團體의 直間接投資 1兆2,654億의 確保는 큰 問題가 없읍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豫想되는 篤林家, 企業體의 民間投資 活性化 與件과 雰圍氣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政府는 여러가지 稅制·金融등 制度的 措置를 꾸준하게 講究해 나갈 것입니다.

特히 88年度의 山林關係 豫算은 今年보다 36%라는 劃期的인 增額으로(845億), 其他 融資(214億)를 合하여 처음으로 1千億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報告드리며, 그리고 山林開發資金 500億도 年次的으로 반드시 確保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問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政策을 推進하고 實現해 나가는 山林公務員, 山林組合, 篤林家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成就意欲과 줄기찬 信念, 우리林業界의 團合과 參與雰圍氣 造成입니다.

지난 70年代初 治山綠化事業을 시작할 때의 그 意志의 活力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山林公務員, 山林團體와 篤林家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第2의 山地開發을 위한 새로운 불씨와 執念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國有林管理行政을 劃期的인 現場責任經營體制로 改編하고, 道의 山林行政機構의 強化, 林業經濟研究機能의 補強, 山林組合의 制度的 機能補完 등이 바로 우리 林業界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는 契機가 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끝으로 山地資源化政策을 成工的으로 推進하는데 가장 核心的인 課題가 바로 確固한 政府의 政策目標에 對한 汎國民的인 參與와 協助, 山과 나무에 對한, 푸르고 울창한 國土에 對한 나라사랑의 國民的共感帶를 造成해 나가는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逆說的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山을 가지고 있는 山主들도 自己山과 林野를 나무를 심거나 가꾸지 않고 그대로 放置하는 것

을 부끄러워할 만큼 우리의 모든 山林에 對한 社會的 共同財産으로서의 責任意識이 自發的, 自律的으로 形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林業界의 指導者 여러분!

山地資源化는 이제 우리의 줄기찬 努力과 政府의 持續的이고 強力한 支援, 汎國民的인 參與로 반드시 成就시켜야 하는 當面 課題입니다.

祖上代代로 물려받은 錦繡江山, 國土의 2/3를 차지하는 唯一하고 所重한 民族의 資産을 더욱 알차고 보람있게 가꾸고 活用해 나갈 歷史的 責任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林業界 여러분의 全幅的인 協助와 參與속에서 우리 모두가 最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山地資源化政策에 關한 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年 11月 30日

3. 建議文

今般 政府가 樹立한 山林資源化十個年計劃을 우리 林業人들은 全幅的으로 歡迎합니다.

只今은 綠化의 時代는 지나고 山林資源化의 轉換期를 맞아 우리林業人들은 새로운 覺悟와 召命意識을 가지고 山林資源化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山林資源化의 길은 山林의 經濟 또는 技術的 特性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山林이 綠化는 되었지만 욱어진 不良木을 除去 하고 有用樹種으로 樹種更新을 해야하며 既往에 심은 나무도 育林管理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山林事業의 生産費를 節減하자면 우선 林道를 닦고 機械化를 圖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莫大한 豫算이 必要합니다. 그러나 只今은 全國土의 六七%나 되는 山林에 山林部門 投融資額이 우리나라 全體投融資豫算의 0.5% 線에 不過하여 山林事業이 不振함으로서 해마다 大學이나 農高에서 林學을 工夫하고 나오는 1,500餘名이 갈곳이 없읍니다.

또한 山主도 造林한 山이 法定制限林으로 묶여 한푼의 補償을 받지 못하고 또 當代에 收入도 없는 長期投資에 相續稅 讓渡所得稅가 加重되고 산불 等 自然災害가 커서 民間의 山林投資가 至極히 不振한 狀態에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山林을 管掌하는 山林關聯業務도 建設部, 保社部, 文化公報部等 各機關에 分散되어 統一性과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市道 및 營林署 一線 山林行政機構가 日帝때 그 機構 그人員으로는 發展하는 行政을 勘當할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林業人들을 山林資源化의 效率的인 推進을 爲하여 다음 事項을 黨政에 建議합니다.

一、山林投融資를 山林部門의 G.N.P가 차지하는 比率만큼 높여 林業의 活性化를 期하고 林業人口의 底邊을 擴大하여 많은 失業者를 林業으로 끌어 들이도록 한다.

一、山林關係法令을 整備하여 모든 規制를 緩和하고 林産物輸入에 割當關稅를 適用 林産物 價格安定 對策을 講究한다.

一、山林의 相續稅와 讓渡所得稅를 大幅減免하는 同時法定制限林은 最大限 補償하여 山林資源化事業에 民資誘致를 極大化한다.

一、現在 各部處에 分散돼 있는 山林關聯業務로서 特히 公園管理 造景業務等은 山林廳에서 一括하도록 하고 市道 및 營林署 山林行政機構를 擴大補強한다.

一、山林組合을 山主組合으로 改編하고 農協, 水協, 畜協과 같이 林業基金을 擴大 金融信用業務를 担當케하여 林業人의 金融便益을 圖謀하며 山林保險業務를 担當하여 林業의 安定을 期한다.

以上과 같은 우리의 建議가 黨政에 收斂되어 우리 林業人들이 지난 半世紀를 通하여 벌거벗

은 山에 緑化란 大課業을 해낸 貴重한 經驗을 살려 山林資源化의 奇蹟도 우리가 반드시 成就할 것을 全林業人의 이름으로 다짐합시다.

1987年11月20日

全國林業人一同

4. 山林公約事項

(1) 造林과 育林을 目的으로하는 保全林地에 對하여는 相續稅等 各種 稅制上의 惠擇을 크게 擴大해서 山主에게 造林과 育林 意慾을 높여줌으로서 林業이 하나의 産業으로 發展되어 山林資源化를 通한 木材自給率을 높임과 同時에 原木輸入으로 因한 外貨消費를 줄여 나가겠읍니다.

(2) 山林의 生産性 提高를 위하여 長期低利 山林開發基金을 大幅增額造成하고 農漁村 地域開發基金을 山林分野에 集中支援할 수 있도록 하는 等 投融資를 擴大해서 林道建設을 擴充하고 林業의 機械化를 促進하며 樹種更新造林 事業이 極大化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3) 公園, 採種林, 保安林等 모든 法定制限林에 對하여는 山主나 山林投資者가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補償制度 國有林과의 交換. 諸般規制의 緩和等 各種對策을 講究하여 山主가 安心하고 山林投資를 할수 있도록 制度的인 措置를 할것입니다.

(4) 山林을 多目的林으로 積極 開發해 나갈것입니다. 相對林地에는 各種遊休施設 리크레이숀 施設, 수렵장等 國民休養과 文化施設을 造成해서 山林이 온國民의 情緖生活培養의 道場이 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先進林業技術의 開發普及과 山林副産物의 生産擴大等에 힘써 山林所得이 크게 增大되도록 하겠읍니다.

以上과 같이 劃期的인 山林政策을 推進해 나가고 今般政府가 樹立한 山地資源化10個年計劃을 蹉跌없이 遂行하기 위하여 山林關係法令을 整備해서 이제 林業도 民主化가 되도록 모든 規制를 緩和할 것이며 地方自治制 實施와 함께 道 및 營林署 山林行政機構의 大幅的인 補強과 山林組合運營의 活性化等을 果敢하게 推進해서 林業이 하나의 産業으로 發展하도록 積極的인 政策을 펴나갈 것입니다.

5. 結 言

우리는 本大會를 通하여 山地資源化 10年計劃의 推進方向에 對하여 充分한 理解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現在 林業人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들어 우리 林業人의 意思를 充分히 傳達했다고 본다.

우리의 建議事項이 收斂되어 우리 林業이 發展하는 契機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特히 우리 林政曆史以來 政党에서 山林公約을한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자못 뜻이 있다고 하겠다.